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광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속도 제한 노면 표시 지워져...보·차도 분리 안돼 '위험' 5개 자치구 실태조사...곳곳 방호 울타리 미설치에 노면 표지도 제각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 이후 단속 시작(2022년 2월 1일) 3년째를 앞두고 있지만, 광주지역 스쿨존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스쿨존에는 불법주정차가 횡행하고 속도제한 등 노면 표시가 지워지거나 보·차도 구분이 미흡하는 등 문제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광주 5개 자치구 중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이같은 문제점들을 분석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각각 내놨다.

각 자치구별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의 40% 안팎의 지정 구역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다. 각 자치구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가 연 1회 의무화된 데 따라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보호구역에서 노면 표시가 지워지거나 표지 규격이 맞지 않고, 불법주정차와 보·차도 미분리 등 문제가 발견됐다.

동·서·남·북구에서 조사한 어린이보호구역 125곳 중 102곳(81.6%)의 노면 표시가 지워지거나 흰색 페인트로만 그려지는 등 규격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26곳(20.8%)에서는 보·차도 간 높이 차이가 없거나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보·차도 분리가 미흡했다.

횡단보도 신호기가 없거나 과속방지턱 각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만들어지고, 횡단보도 등이 노란색이 아닌 흰색으로만 칠해지는 등 문제점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실제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YWCA 어린이집 앞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10여대의 차량이 불법주정차돼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종점과 맞닿아 있는 '주정차 할 적제' 주차 구역에서 이어진 주차 행렬이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침범한 것이었다. 차량들은 주차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이날 내린 눈이 두껍게 덮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같은 동 의서광초 또한 학교 담벼락 옆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어린이들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숨어 가며 눈싸움을 즐기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도 연출됐다.

노면 표지도 제각각이었다. 서구 화정동의 화정남초, 남구 대성초 등 인근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지가 닳아져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서광초 인근에는 흰색 속도제한 노면 표지를 지우지도 않고 그 위에 빨간색 표지를 덧그려 두 노면 표지가 겹쳐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동구 서석초 인근 도로에는 보·차도 간 높이 차이가 없고, 울타리가 아닌 30cm 남짓 높이의 도로분리봉으로만 분리해냈다. 동구 중앙초 인근 도로에는 '예술의 거리'를 오가는 차량이 적지 않음에도 보행로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예술의 거리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이 표시된 한 가로등은 차량에 부딪혔는지 밑둥이 찌그러지고 기울어진 채 방치돼 있었다.

광주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 곳은 노면 표시가 금방 지워지는데, 보행로를 확보하기 어려울 만큼 좁거나 오랜 기간 이면도로로



7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

쓰이던 길도 있어 저마다 관리 실태가 다른 것"이라며 "설치된 시설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할 때 마다 다른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는 데안을 따로 제공하지 않다 보니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에 맞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규격을 일원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첫 중대재해법 기소 회사 대표이사 징역형

경영진 3명 징역 2년 선고

광주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인 전자제품 제조사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회사 대표이사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자제품 제조회사 경영진

3명에게 징역 5~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7일 밤 9시 10분께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공장에서 야간작업 중이던 20대 근로자 A씨가 1.8t짜리 철재코일에 깔려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A씨는 코일 전도 방지 조치나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작업 방식을 선택한 것이 사고의 영향이 크지만, 회사는 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아 A씨 혼자 작업하게 하고 사전에 A씨가 위험하게 작업하는 모습이 수차례 발견됐음에도 몇 차례 주의만 줬던 것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라면서 "회사가 사고 이후 안전설비에 투자해 위험 제거를 위한 조치를 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A(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B(26·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

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C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 훈련병은 나주지역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B씨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법정에 선 마약 운반책의 선처 호소 눈길

"보이스피싱에 전세사기까지 당해 막다른 길 몰렸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강화 속 검찰 징역 5년·추징금 구형

"가족 모두가 벼랑 끝에 내몰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7일 광주지법 204호 법정에서 형사5단독(판사 지혜선)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곡절을 소개하며 고개를 숙였다. 잇따라 닥친 불행은 A씨의 삶의 의지를 꺾었다. 그는 태권도장 운영이 경영난에 빠진데다 보이스 피싱 사기와 전세사기까지 당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고립됐다고 주장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특수학교에 보내던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배달, 고층 건물 외벽 청소, 대리운전까지 닦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한다.

힘들게 일했지만 건강보험료가 연체돼 수입 통장까지 압류당했다. 아버지마저 암수술을 받게되자 A씨는 고액 알바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불법을 의심했으나, 절박한 처지에서 수단

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끌렸다는 것이다.

A씨는 SNS에서 '실장'이라는 인물이 시키는 대로 검은색 테이프로 돌돌 만 물건을 도심 곳곳에 숨기고 배달했다. 일명 '던지기' (특정 장소에 숨겨두면 찾아가는) 수법이었다.

결국, 지난해 11월 광주지역 한 아파트에서 물건을 배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2175g에 달하는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장은 "불법인 줄 알고 고액 일을 했는데"고 물었고, A씨는 "마약이 아니라고 믿었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처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마약범죄를 범한 A씨의 호소가 통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마약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가중양형으로 마약가액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양형 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하기로 했다. A씨가 배달한 양은 이 기준을 크게 웃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과 1억6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광주지법 법정은 법정에서 다음달 6일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해피니스CC 회원모집(26차) 공고

■ 사업개요

1. 명 칭: 해피니스 CC
2. 시설규모: 회원제18홀, 대중제27홀 (전장 16,309M)
3. 위 치: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4. 총회원모집구좌: 509구좌 (정회원: 416구좌, 평일회원: 93구좌)

■ 회원특전

1. WIP 정회원 5차 (6억): 1구좌
 - 정회원 1인: 그린피면제(1일·1회 사용), 골프회원 할인혜택
 -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50% 할인, 연30회 그린피 면제 (1일·1회 사용)
 - 지정회원엔 그린피 면제 위임시 동반3인 그린피 70%할인 (1일·1회 사용)
 - 비회원엔 그린피 면제 위임시 그린피 70%할인 (1일·1회·1팀4인 기준) (단, 그린피 면제는 정회원, 지정회원, 비회원 중 1일·1회만 사용가능)
 - 지정회원2인: 그린피 면제(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 (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2. WIP 정회원 4차 (7억): 3구좌
 - 선택: A·B·C·D·E 중 선택(1)
 - A형) 정회원 1인: 그린피면제(1일·1회 사용), 골프회원 할인혜택
 -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50% 할인, 연25회 그린피 면제 (1일·1회 사용)
 - 지정회원엔 그린피 면제 위임시 동반3인 그린피 70%할인 (1일·1회 사용)
 - 비회원엔 그린피 면제 위임시 그린피 70%할인 (1일·1회·1팀4인 기준) (단, 그린피 면제는 정회원, 지정회원, 비회원 중 1일·1회만 사용가능)
 - 지정회원2인: 그린피 면제(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 (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 B형) 회원 없음
 - 무기명카드1매 발급: 그린피 70%할인 (연 60회/월 5회 소멸성, 1일·1회·1팀4인 기준)
3. VIP 정회원 9차 (5억): 3구좌
 - 정회원 1인: 그린피면제(1일·1회 사용), 골프회원 할인혜택
 -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50% 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1일·1회 사용)
 - 지정회원2인: 그린피 면제(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 (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4. 하트 정회원 (3억 2천): 10구좌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1일·1회 사용), 골프회원 할인혜택
- 지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 (연 72회 사용/월 6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5. 해피 정회원 (1억 8천): 5구좌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1일·1회 사용), 골프회원 할인혜택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 (연 36회 사용/월 3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6. 공통사항

- 계약금 완납시: 정회원 혜택(본인만)만 부여
- 잔금 완납시: 모든 혜택무효화, 지정회원, 동반자, 무기명카드 발급 부여

■ 입회신청 계약기간 및 신청 계약장소

1. 기간: 2025년 01월 01일 ~ 분말 종료시까지
2. 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전화 061) 330-5001-4

■ 신청시 구비사항

- | 개 인 | 법 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회신청서 1부 (당사 소정양식) 주민등록증 1부 본인 및 지정회원 반명함판 사진 각 3매 도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회신청서 1부(당사 소정양식)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 및 지정회원 반명함판 사진 각 3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각 1부 법인인감(인감증명서 1부 포함) |

■ 입회금 수납은행

- 광주은행: 001-127-012066, 예금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 ※ 상기 계좌 이외의 입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은 회원가입신청서, 회원 회칙, 이용약관에 의거합니다.

■ 가입안내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전화 061) 330-5000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사무실 광주 서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 서구 서향2길3(서향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